

이재명, PK~광양~여수~순천~목포 ‘이순신 벨트’ 유세

공식 선거운동 첫 전남 방문
YS 고향 시작 DJ 고향서 마무리
임진왜란 국난 극복 되새기고
동남권~호남권 발전·통합 ‘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지역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전남 방문이다. 14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던 이 후보는 15일 전남으로 이동해 이른바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의 서쪽 유세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15일 유세 일정으로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거쳐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이순신 벨트”라며 명명한 배경에 대해 “부산에서 경남, 전라도까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진다는 콘셉트의 유세”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포 해전과 한산도대첩 등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맞아 승리했던 역사를 함께 하는 여정”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14~15일 일정은 지역 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선거 전략으로, 이 후보가 ‘이순신 벨트’ 유세 첫날인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후보는 15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하동 화개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일차리와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단한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구장을 방문, 철강과 물류, 해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남 첫 방문지인 광양에서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들 첫 유세지로 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전남 지역 중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순신 벨트 이동 동선과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 이어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였던 여수를 찾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광장에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정은경, 윤여준, 박찬대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한 뒤 순천과 목포에서 유세를 마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YS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거제서 시작해 이틀간 대장정을 서남해안의 관문이자 DJ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마무리한다”며 “민주화와 IT(정보기술)산업을 이끈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서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강하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4일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와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공약하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 요구 속에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문수 후보,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 ‘총력’

경남 진주·사천 전통시장 유세
주 후반 호남권 방문 외연 확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 머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날 부산에서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경남을 순회하며 지지층 표밭 갈이에 주력했다.

진주와 사천의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방문하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진주중앙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유세에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되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요즘 아주 민생이 어렵다”며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경상대학교 졸업생부터 취직도 잘 되는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민생’, ‘일자리’ 등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그는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지켜오는 위대한 진주 정신, 과학하는 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행하는 정신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유권자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달나라로부터 화성으로, 우주로 가

는 위대한 진주·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주 유세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그는 운영반 청장으로부터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 개발, 산업 육성 현황 등을 브리핑받고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밀양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일정과 관련해 “산업 살리기, 기업 돌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주항공산업과 방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을 끝으로 상경하는 김 후보는 이번 주 후반 충청과 호남 방문을 계획 중이다. 영남권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속을 다진 뒤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국토·도시·지역개발 교수·연구원104명 “국가균형발전의 책임자” 이재명 지지선언

광주·전남지역 국토·도시·지역개발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100여명이 국가균형발전의 책임자임을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광주·전남지역 국토·도시·지역개발 전문가 모임”(대표 이봉수

박사)은 14일 오후 목포역 호남선중착역 표지석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104명은 광주·전남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에서 국토·도시·지역개발을 전공으로 활동하는 명예교수, 학회장, 교수, 연구원, 석·박사 등으로, 다음 정부에서마저도

광주·전남에 대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성명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한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집중’해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다”며 “광복 후 8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지방의 인구소멸위기, 지역 역량 급감 등 그 부작용도 극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표면적인 균등을 추구하며,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어 ‘분산’과 ‘균형’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부채에 대하여 강조한 만큼 향후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자”라며 “이 후보가 극심한 국가불균형발전을 타개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도시 및 지역 개발, 도시재생, 건축·토목 등을 전공 또는 연구하

는 교수, 연구자,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임 대표인 이봉수 박사는 “차기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뒤쳐져 있는 호남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역 수산업 경영체들의 연합 조직인 수산업경영연합회도 지난 13일 전남도의회에서 위기에 내몰린 지역 수산업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후보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